광주전남연구원, 다시 분리된다

이사회, 운영 효율화 방안 시·도에 요구…5대 원장 공모 '중지'
연구원 위상 추락·상생 협력 위축 등 우려…대책 수립이 먼저

광주전남연구원이 조만간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9월 상생 협력 차원에서 통합 출범했으나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에 무게를 두고 분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열린 제39차 이사회에서 오는 2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재영 현 원장의 후임 공모 절차를 중단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최고·최대 연구기관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별도의 산하기관으로 하기 위해 분리 운영할 경우 용역기관으로의 위상 추락, 초광역사업 및 상생 협력 위축,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연구원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29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까지 진행된 광주전남연구원 제5대 원장 공모에 1인만 응모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재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원 통합 운영방식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원장 공모를 일시 중지하기로 의결했다. 민선 8기 들어 강기정 광주시장을 시작으로 신민호(순천6)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원(담양1) 전남도의원 등이 연구원 분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구원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시·도는 연구원 인력 및 재정 지원 강화, 위상 제고 등을 포함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우선 분리의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이사들은 분리를 전제로 한 효율적 운영 방안은 불가하다는 의견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 이사장은 "지역의 유일한 정책연구기관인 통합연구원이 그동안 많은 연구성과를 내는 등 제 역할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방안에 대해 공식 검토를 요청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연구원이 지역발전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시·도가 추천한 각 7명의 선임직 이사와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5명의 당연직 이사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얼음꽃 활짝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무등산 자락인 광주 북구 금곡동의 한 인공 연못 주변 나무가지에 하얀 고드름이 피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녹색 에어컨' 호남정맥, 미세먼지 차단 효과 크다

산림청 "금남호남정맥 등이 광주·전남북에 영향 끼쳐"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주요 산줄기인 호남정맥과 금남호남정맥이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호남정맥 449㎞와 금남호남정맥 72㎞의 산림 실태변화를 조사한 결과, 두 정맥의 산림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광주시를 비롯한 전주시, 남원시, 순천시 등 전라남·북도 17개 시·군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남정맥은 전북 진안군 주화산에서 광양시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며, 금남호남정맥은 경남 함양군 장안치에서 전북 진안군 주화산으로 이어진다.

두 정맥의 산림에서 만들어진 찬 공기는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에서 찬 공기 생성과 흐름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분석돼 금남호남정맥 산림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맥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가 입증됐으며,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분기돼 있는 정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전남 초등학교 10곳 중 1곳 신입생 없다

신안 9곳·여수 6곳 등 49곳…중학교 1곳도

학령인구 감소로 전남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이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면 조만간 전남지역 초등학생 수가 1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휴교 중인 학교를 포함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49곳(10.4%)에 달했다. 또 올해 초·중·고 848개 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 수는 모두 30곳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451개교 중 29곳, 중학교 254개교 중 1곳에서 신입생이 '0명'이었다. 지난해 신입생이 없어 현재 휴교 중인 초등학교가 20곳에 달해 이를 포함하면 모두 49개교(10.4%)가 신입생이 없는 셈이다.

2년 연속 신입생이 '0명'인 학교도 17곳에 달한다. 3년 이상 휴교가 이어지면 폐교 대상이 된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섬 지역 분교가 많은 신안군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수시와 진도군이 6곳, 보성군 5곳 등이다.

신입생이 1명뿐인 초등학교도 24곳이나 됐다. 중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2곳이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2021년 1만5815명이었지만, 지난해 1만3815명, 올해 1만2789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도심 5곳 '우회전 신호등' 설치 추진

어린이교통공원·극락초 등

광주 도심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광주경찰청은 "어린이교통공원·극락초·벽진고가 하부·중외공원·송도로 입구 등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광주에는 현재 우회전 신호등은 단 한곳도 없다. 기존에 우회전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빨간색과 녹색, 2개의 등으로 구성된 신호등은 '신호보조등'으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빨간색으로 정지를 표시하기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신호보조등은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경찰청 지침에 따라 모두 철거한 상태다.

새롭게 설치되는 우회전 신호등은 3개의 등으로 표시되며 제일 아래 녹색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의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쟁 피해' 우크라이나 고려인 비자 문제 해결

법무부 "난민 비자 연장"

전쟁을 피해 고국으로 왔지만 비자가 만료돼 '추방 위기'에 놓였던 고려인 동포들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지난 27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여행증명서의 기간과 관계없이 난민 비자를 연장하라는 지침을 광주출입국사무소 등에 전달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지난해 4월 한국에 온 고려인 문안젤리카(여·30)씨와 아들 문마르크(3)군은 난민비자(G-1)가 연장이 되지 않아 한국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문씨 모자는 여권이 없는 무국적자로 당시 한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여행증명서를 근거로 난민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이 여행증명서가 오는 4월 만료되면서 난민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법무부가 지난 27일 고려인마을에 고려인 동포들의 비자 연장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고려인마을 동포 중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자는 10여명이다"며 "비자 문제로 걱정이 컸는데, 한시름 놓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